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1965년 6월 30일 한글대장경 제1집 <장아함경>을 펴낸 이후 장장 37년 간 계속 되어 온 한글대장경 역경본사.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 318권의 완간을 기원하고 향후 전산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알리기 위해 9월 5일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 회향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으로 원문 번역을 하는 역경사의 역할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인력난을 겪어야 했던 게 자간의 사정이다. 그런 가운데 개인적인 원력으로 역경사업에 일생을 걸었던 운허(雲虛)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교학자 등 '역경보살(譯經菩薩)'들의 활약으로 한글대장경 불사가 오늘을 이룩할 수 있었다.

법음 우리글로 다듬은 '아난의 화신'



한글대장경 주역들

한글대장경 불사의 제1 주역은 누가 뭐래도 운허 스님이다. 스님은 초대 역경원장을 역임했다. 스님은 역경원을 행정적인 기관으로서 외호하기도 했지만 고려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필생을 걸었다.

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초창기에 역경부장을 지낸 법정스님은 탁월한 문장력과 해박한 경전 지식으로 <정토삼부경>을 번역했다.

운허·월운·법정스님
탁월한 번역 명성

한 각성스님과 <마하승기율>을 번역한 운제스님, <아비담승정이론>을 번역한 명성스님 등도 한글대장경 불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역경보살들이다.

재가자로는 이종익씨와 이원섭, 송성수, 김달진, 이창섭, 이진영, 서경수씨 등이 대표적인 역경공로자로 꼽힌다.

<진각국사집>을 비롯한 한국찬술의 문집들을 주로 번역했다. 운허스님으로부터 상좌의 종애를 받았던 김달진 박사도 <보조국사집> 등의 한국찬술들을 번역했으며 한학자로 이름 높았던 이창섭씨는 고승전들을 번역했다.

번역원고에 대한 의미 해석을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증의분과에서는 초창기부터 탄허스님과 자운, 관음스님 등이 활약했으며 이후 불교학

이종익·김달진등
재가자도 맹활약

계의 원로들이 작업을 맡았다. 원고를 최종적으로 다듬어 내는 운문분과에서 공로를 쌓은 문인으로는 조지훈, 서정주, 이은상, 조연현씨 등이 초창기부터 활동했다.

90년대 들어 원로학자들의 뒤를 이은 대표적인 역경보살로는 권오민, 김호성, 장승용, 오진탁, 박인성 교수 등이 꼽힌다.



동국역경원이 37년간에 걸쳐 한글대장경을 완성해 9월5일 대규모 회향법회를 갖는다. 사진은 역경원 편집실의 작업 모습.

현장스님 1335권 번역
구마라집과 '2大譯聖'

대표적인 중국 역경가

역경은 불교전래는 물론 불교 사상과 교리의 이해를 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 불교사 1900년에 있어 앞의 900년을 경전의 번역과 교학의 연구 즉, 전역(傳譯)의 시대로 보는 것도 이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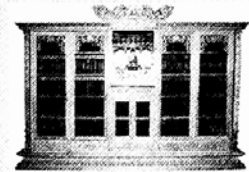
경 <정법화경>. 등 상당히 많은 경전을 번역했다. 중국 불교의 4대 역경가로는 구마라집(鳩摩羅什)과 진제(眞諦), 현장(玄奘), 불공(不空) 등의 삼장법사들이 손꼽힌다.

중국 최초의 역경가는 안세고(安世高)다. 안식국의 태자로 아비담학을 탐구한 안세고는 건화 2년(147) 낙양에 도착해 20여 년간 오직 경전의 번역과 출간에만 매진한다. 이어서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경전의 한역역 역사 시작된다. <사제경> <전법륜경> <팔정도경> 등은 대장경 속에 현존하는 그의 대표적인 역경이다.

구마라집은 7세에 출가하여 서역제국을 순례하며 불교를 연구했다고 전한다. 그는 왕으로부터 역장(譯場)을 하사 받아 역경에 종사했으며 74부 384권의 경전을 번역했다. <금강반야경> <대품반야경> 등 중요한 경전들이 그에 의해 번역 됐으며 대승의 주요 논서들도 번역해 삼론종과 성실종이 흥기(興起)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서진 시대의 촉법호(竺法護) 역시 월지인인데 무제 때부터 회제 때에 이르는 40여 년을 역경에 몰두했다.

중국불교에는 이 밖에도 수백 명의 역경가들이 일생을 바쳐 역경과 교학연구 후학양성에 매진하여 찬란한 그들의 불교사를 만들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상 받고 있다.

석주·석정스님·전용원 의원 '화주'

역경본사 후원한 외호보살들

동국역경원의 역경본사를 돕는 외호보살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95년 창립된 역경후원회는 회장 석주 스님을 중심으로 1구좌 1천원씩의 역경기금 모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 역경후원회 회장 석주스님은 이미 역경원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역경사업에 몸을 바쳐 온 역경보살이다. 스님은 은사인 적음(寂音) 스님이 해방이후 출공 역경사업에 몸바쳐 온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 1961년 5월 개인적인 원력으로 역경기관인 '법보원(法寶院)'을 창립했다.



석주스님, 석정스님, 전용원씨

불교사전(雲華辭典)을 발행하고 <유마힐경> <승만경> <열반경> 등 10여종의 경전을 주로 운허스님의 번역으로 간행했다. 이후 동국역경원이 설립되자 '한 중단에 두 개의 역경기관이 있을 필요는 없다'며 법

보원의 모든 판본들을 동국역경원에 회사했다. 이처럼 역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석주스님은 1995년 노남(老南)을 마다하지 않고 후원회장을 맡아 전국을 무대로 역경본사의 화주보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역경원의 초대 유통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불모 석정스님도 불모이 역경본사를 지원해 왔다.

처님 일에 회황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동국역경원이 재정난에 봉착할 때마다 적지 않은 재원을 후원했던 것. 또 제 2대 역경원장을 역임한 영암스님과 제 3대 원장을 역임한 자운스님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던 외호보살로 손꼽힌다.

현재 삼장법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전용원 의원은 선대(先代)부터 봉선사의 특실인 신도다. 삼장법회의 회원들을 관리하여 역경 후원과 내실 있는 신행단체의 위상을 세우는데 헌신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Text describes the benefits of the 'Palgae Mandala' artwork, including health and spiritual growth.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eonjiwan Gyeonghui.

Advertisement for 'Acanthopanax' (오가피) ginseng. Text describes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mentioning it is a 'reproduction of the original' and '100% domestic'.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 health consultant.